

# 일연은 '실증주의 답사한' 기자?

### 탄생 800주년 기념, 대구KBS에서 2일 다큐 방송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려다 '왕사'로 불림받았던 청도 운문사.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가 영상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 탄생 800주년을 맞아 대구 KBS가 다큐멘터리 '일연 선사'를 준비했다.

11월 2일 저녁 7시 30분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일연'은 일연 스님의 행적을 따라 <삼국유사 바로보기>의 저자 고운기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가 진행한 답사 과정을 담았다.

<삼국유사>는 설화를 모아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실증주의 답사를 통해 수십년 모은 자료를 정리해 집필한 것이라고 다큐멘터리는 설명한다. 일연 스님의 역할이 일종의 기자였다는 것.

경주 갑은사지, 익산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 등 <삼국유사> 속 사찰들에서는 설화의 흔적을 역사적 사실로 고증했다. 청도 운문사, 군위 인각사 등 저자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거나 하려했던 사찰 등을 찾아 스님들과 차담도 나

누며 일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일연'은 일연 스님이 애국심을 가지고 <삼국유사>를 썼던 의도와 소설처럼 쓴 것이 아니라 실증주의 답사 통해 수십년 동안 자료를 모아 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답사의 형식을 취한 것도 그런 이유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일본 도쿄에 와세다대 교토대 천리대 등도 찾아가 <삼국유사>의 흔적을 찾아냈다. 1902년과 1904년 도쿄대 본으로 출간된 <삼국유사>도 영상에 담았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서 활동했던 한반도 고대사 연구학자 이마니시 류(李西龍)의 제자들도 만났다. 이마니시 류는 조선총독부 소속의 역사학자로 <삼국유사>를 고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조선 역사가 나오는 '환인'은 원래 '한국'이었던 것을 고쳐 나라를 없애고 신화적 인물로 바꿔놓았다는 것이 사학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마니시 류의 제자들을 만나 "삼국유사가 고쳐진 것이 맞지만 이마니시 류가 고친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듣는다.

<삼국유사>만을 연구해온 전문학자, 삼국유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도 출연해 <삼국유사>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삼국유사> 속 '황룡사'에 얽힌 설화는 애니메이션으로 변신한다.

제작진은 "그리스로마신화가 유럽 그리스 등에서 전해오는 사상을 대변하고, 구약성경이 유대인들의 민족 신앙이자 역사서인 것처럼, 우

리나라에는 삼국유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방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저자가 스님이라는 이유로, 또한 일제사자들에게 의해 고조선 역사 부분이 고쳐지면서 역사가 아니라 설화집이라는 식으로 폄하된 부분을 벗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제작진이 내린 결론이다.

홍수경 작가는 "일연' 다큐멘터리는 <삼국유사>를 재발견하고 공부해야 하는 민족의 교과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동안 일제침탈기 시절 폄하됐던 <삼국유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연 기자 gyang@buddhapia.com



고운기 교수 국내 유적은 물론 일본까지 답사 설화 속 장소, 황룡사지 등 인연있는 사찰 고증 일제 강점기에 폄하됐던 역사 의혹 사실 확인

경주 황룡사지.

## 저출산·찬불가가 키워드

### 불교TV 가을개편 단행

불교TV가 10월 30일부터 가을종합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가을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저출산 고령화' '찬불가와 명상음악'으로 집약할 수 있다.

저출산과 관련, '1사찰 1보육시설' 운동을 유도할 프로그램은 '동심탑방 어린이세상' (금 7:45)이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소개하고, 육

아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살바라이프 6070' (금 7:45)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사회참여 기반을 소개하고 일자리 및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찬불가 콘서트 붓다뮤직' (목 14:30)을 신설해 합창곡 위주의 찬불가에서 탈피해 가요처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보급한다. MC는 불자 재즈 가수 웅산이 맡았다. 해조는 아소다라 풍경소리 LMB싱어즈 김성녀 김영임 안치행 등 불자 가수 및

밴드들이 출연해 다양한 찬불가와 불교와의 인연등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인물다큐 항기로운 삶' (목 7:45), '경전 극장시리즈 관세음보살의 인연' (화 19:30), '신 실크로드' (월 0:30), '문화스페셜 한국의 보물' (월 22:45), '백승사 벽승선회' (수 0:30), '환각 스님이 전하는 달마어록' (화 14:30), '심포지엄 명상의 과학적 탐구와 임상적응용' (월 13:00), '달라이 라마 특별법문' (월 13:00), '청소년명상 IQ EQ 축속' (월-일 7:30), '영혼의 소리 NaDa' (월 15:30) 등이다.

강지연 기자

## 작곡가 양성·동서 음악 교류 확대 기대

### 윤이상평화재단 '국제윤이상음악상' 제정

윤이상평화재단이 故 윤이상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국제윤이상음악상'을 제정했다고 10월 24일 발표했다. 윤이상 탄생 90주년이 되는 2007년에 첫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2007 국제윤이상음악상'으로 명명된 이 상은 문화관광부 후원을 받아 제정됐다. 젊은 작곡가 양성 및 동·서양 음악 교류의 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국제윤이상음악상. 윤이상의 음악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적 음악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작곡 콩쿠르 형태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개최될 음악상의 대상 수상자는 미화 2만달러의 상금과 함께 2008년 네덜란드 가우데마루스 음악제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바로크합주단 등에 연주기회를 제공한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1만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2007년 6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한 2007 국제윤이상음악상 응모 자격은 1967년 6월 15일 이후 출생자이다.

심사위원회는 전후 독일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니콜라우스 후버, 유럽에서 윤이상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지휘자 프란시스 트라비스,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이사오 마츠시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황성호 교수, 작곡가 강준일씨 등이 선정됐다.

국제윤이상음악상 제정을 기념하는 해설 음악회도 마련된다. 윤이상 타계일인 11월 3일을 전후해서 2일 예술의전당, 4일 파주 헤이리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2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윤이상 실내악 명곡의 밤'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진행된다. 윤이상 5개의 소품, 노래, 바이올린 소나타,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Op.49를 연주한다.

4일 파주 헤이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오후 5시에 열리는 '윤이상 현악 4중주의 비밀을 찾아서'는 파르텍X가 현악 4중주 5번, 1번 등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강지연 기자

## 인드라 스님, 앨범 'INDRA' 출시

### 작곡가 김희갑씨 부부 동참

플루티스트 서연 스님이 '인드라'라는 예명으로 대중 가요 앨범 'INDRA인드라'를 출시했다. MBM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하고 도레미미디어가 제작한 음반 '인드라'는 작곡가 김희갑, 작사가 양인자 부부가 함께 만든 주옥같은 가요 8곡을 수록했다.

타이를 곡은 '무명' '정구업진인' '사막의 전갈' 등 3곡. '무명'은 생이 바뀌어도 단절될 수 없는 인연을 노래했고, '정구업진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행복을 찾자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았다. '사막의 전갈'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기적인 세태를 불교적 시각에서 풍자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눈물을 닦아주세요', 의롭게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노래 '산티 산티 산티', 남보다 내가 먼저 술선수범 하자는 캠페인송 '내가 먼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적 메시지가 담긴 응원가 '아리아리랑' 등

도 선보인다.

인드라 스님은 마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플루티스트를 역임했고 출가전 동편제 이수자 정제화씨에게 사사하는 등 동 서양 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세계를 구축해왔다.

강지연 기자



인드라 스님(왼쪽)이 작곡가 김희갑씨와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 니르바나 소아암 환아 돕기 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장 강경진. 이하 니르바나가 11월 1일 제4회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를 KBS홀에서 개최한다.

소아암 환아 돕기 음악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과 기부금은 전액 복지단체 등을 통해 선정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혈액암협회와 손을 잡고 마련

한다. 한국혈액암협회는 전국 병원 복지사로부터 추천받아 후원받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선정했다. 재정지원은 한국불교대원회가 맡았다. 니르바나는 음악회 개최비용을 전액 지원한 대한외교의 적극 후원으로 47명 규모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인다.

강경진 단장은 "소아암 환아를 위한 자선음악회" 하면 바로 이 음악회가 떠오르도록 음악회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 법요집·기초교리집 패도 특별찬경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요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귀의</li> <li>• 찬양합니다</li> <li>• 반이심경</li> <li>• 입경</li> <li>• 청법가</li> <li>• 법문</li> </ul> </li> <li>• 정근</li> <li>• 발원 및 축원</li> <li>• 사홍서원</li> <li>• 선화가</li> <li>• 기터찬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교란?</li> <li>2. 부처란?</li> <li>3. 대승과 소승의 차이</li> <li>4. 사찰에서 쓰는 도구</li> <li>5. 사찰경내 예법</li> <li>6. 합장과 반배</li> <li>7. 고두례</li> <li>8. 예불문</li> <li>9. 삼보</li> <li>10. 삼귀의</li> <li>11. 삼법인</li> <li>12. 삼입</li> <li>13. 삼학</li> <li>14. 신도오계</li> <li>15. 사성제</li> <li>16. 사성법</li> <li>17. 십이인연</li> <li>18. 육바라밀</li> <li>19. 팔정도</li> <li>20. 보왕상매론</li> </ul> </li> </ul>
---	--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까지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패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곁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좋은 책, 향기로운 삶

## 월간 다도 과일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일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